

### III. 2010학년도 1차 선발 시험 해설



#### 언어 영역

- |       |       |       |         |       |
|-------|-------|-------|---------|-------|
| 1. ②  | 2. ②  | 3. ②  | 4. ⑤    | 5. ④  |
| 6. ②  | 7. ②  | 8. ③  | 9. ④    | 10. ③ |
| 11. ④ | 12. ⑤ | 13. ⑤ | 14. ⑤   | 15. ③ |
| 16. ③ | 17. ① | 18. ② | 19. ④   | 20. ② |
| 21. ④ | 22. ④ | 23. ④ | 24. ③   | 25. ⑤ |
| 26. ④ | 27. ⑤ | 28. ① | 29. ③   | 30. ⑤ |
| 31. ③ | 32. ① | 33. ② | 34. ②/⑤ | 35. ④ |
| 36. ③ | 37. ① | 38. ③ | 39. ①   | 40. ② |

#### 1.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현대인’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설문의 답변인 ‘시끄럽다, 굶뜨다, 사납다, 따라 한다. 탐욕스럽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적절한 내용을 생성하는 문제이다. ‘굶뜨다’가 ‘동작, 진행 과정 따위가 답답할 만큼 매우 느리다.’라는 뜻을 감안할 때, ㉠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문제 상황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생성한 내용이 ‘여유를 가지는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이므로 ㉡에는 ‘굶뜨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해하며 재촉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의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 ① ㉠에는 ‘시끄럽다’와 관련된 내용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와야 하므로 적절하다.
- ③ ‘사납다’와 관련된 문제 상황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다.’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온화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무조건 남을 따라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상황으로 설정했으므로 이를 통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내용을 생성한 것도 적절하다.
- ⑤ 탐욕스러운 상황을 문제로 설정했으므로 바람직한 소유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을 생성하는 것도 적절하다.

#### 2.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은 웹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정보를 침해당한 경험이 많음을 나타내고, ㉡은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적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

라서 이를 활용하여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성과 해킹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 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글다듬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금세’는 지금 바로의 의미로 ‘금시에’의 준말이고, ‘금새’는 물건의 값이나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에는 ‘금세’가 적절하므로 ②는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 ㉠ ‘인간은’이 주어이므로 이에 호응하는 서술어로는 ‘확대해 왔다’가 적절하다.
- ㉡ 사막이 확대되고 있다는 논지의 글을 쓰고 있는데, ㉢에서는 오아시스의 물을 논하고 있으므로 논지의 흐름상 불필요한 문장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 앞 문장(‘이런 아마존의 숲이 사라지면 지구의 탄소 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뒷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에는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면’이라는 접속어가 적절하다.
- ㉤ ‘재주는 꿈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말은, 수고하여 일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일에 대한 보수는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말이므로 문맥상 ㉤에 적절하지 않다. ㉤에는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되었을 일을 방치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 4. 조사의 쓰임 이해

정답 ⑤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면서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찾는 문제이다. ①~④는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⑤의 ‘이며 ’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로 [조건 2]의 조건만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 [5~8] 지문 해제

##### 다큐멘터리 기법

다큐멘터리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초창기 다큐멘터리가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충실한 관찰 기록물’로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다큐멘터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그리고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서 정보 전달의 중심 역할을 하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관객들에게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믿음을 갖게 한다. 하지만 제작 과정 행위 하나하나에 제작자의 주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대한 믿음은 과장된 것이다. 이러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자기반영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이다. 이 양식에서는 다양한 기법과 그것에 의해 구성된 화면을 통해 다큐멘터리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되는 제작물임을 나타낸다.

### 5.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정답 ④

셋째, 넷째 문단에서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 특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글 어디에서도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가 발달해 온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①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② 둘째, 셋째,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다섯째 문단의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여섯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 6. 내용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②

둘째 문단에서 '내레이션이 절대적인 기능을 하는 이 양식(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미지가 독립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시각적 증거물이자 보충물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으므로 ②는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설명이다.

### 7.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 ②

'~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보증하는 강력한 기제가 된다.'에서 '㉠기제'의 의미는 ㉠의 바로 뒷 문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증거 화면까지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신뢰감을 주는 성우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객관적인 설명'을 들으며 관객이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기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①은 심리(心理), ③은 전제(前提), ④는 방법(方法), ⑤는 조건(條件)의 사전적 의미이다.

### 8. 주어진 부분의 전제 파악

정답 ③

㉠ 앞부분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에서 내레이터가 사건의

모든 정황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지만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태도가, 다큐멘터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보증하고 있어서 다큐멘터리의 사실성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 내용을 통해, ㉠의 이유는 ③'내레이터가 다큐멘터리를 믿도록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 [9~13] 작품 해제

#### (가) 이규보, 「미인원(美人怨)」

고려 시대의 대표적 시인인 이규보가 지은 절연 고시 형식의 한시로, 객지로 떠돌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 부인의 정한을 표현한 작품이다.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봄의 분위기와 시적 대상인 미인의 고독한 심정이 대비를 이루면서 여인의 정한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나) 안조환, 「만언사(萬言詞)」

이 작품은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이던 안조환이 추자도로 유배되어 지은 유배 가사로, 작가가 국고를 횡령한 죄로 추자도에 귀양 가서 굶주림과 추위, 집주인의 학대와 조롱 등에 시달리며 자신이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다.

제시된 부분은, 유배지에서 해가 바뀌도록 집으로부터 소식이 끊겨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다) 이원, 「술지부(述志賦)」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인 이원이 무오사화에 의해 유배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충성심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창작한 시로, 서울을 떠나 관서의 외진 곳에서 겪는 생활에서 느끼는 심정을 노래하였다.

제시된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어, 충신연주지사에 해당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9. 작품들 간의 공통적 특성 파악

정답 ④

(가)에서는 사랑하는 입과 이별한 여인이 돌아오지 않는 입을 애타게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정서를 엿볼 수 있고, (나)에서는 유배 길에 올라 가족들과 이별한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임금님이 계신 서울을 떠나 가족과 이별하고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며 느끼는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정서가 드러나 있다.'고 하고 있는 ④이다.

## 10.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보기>에서는 사대부들이 시가에서 남녀 간의 애정에 빚대어 임금에 대한 충절을 표현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A]에서는 봄이 오는 자연의 모습과 유배지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가)에서는 화창한 봄의 모습과 임과 이별한 여인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때 (가)의 ‘꽃’과 ‘버들개지’ 등은 ‘나’와 ‘봄’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나’(화자)의 외로움을 더욱 자극하는 대립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③은 적절한 감상 내용이라 할 수 없다.

## 11. 조건을 충족하는 표현 이해

정답 ④

<보기>에서 제시한, 4·4조의 기본 율격을 지키면서 의미상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가’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표현을 찾으려 한다. ④는 기본 율격이 4·4조이면서, 의미상 화자가 돌아가지 못하는 내용이 ‘금수는 집이 있어 돌아가는’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보기>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 12. 어휘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 ⑤

심리가 전환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에서 ‘하늘’은 ‘아득하다’고 하여 임과의 거리감을 심화시키고 있고, ㉡의 ‘지는 해’도 서산에 걸려 임금님이 계신 서울을 떠나는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의 ‘하늘’, ㉡의 ‘지는 해’는 화자의 심리가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⑤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의 ‘하늘’과 ㉡의 ‘지는 해’는 오히려 화자의 심리를 더욱더 외롭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13. 시적 공간에 대한 이해

정답 ⑤

(다)의 화자는 임금님과 가족이 있는 서울을 떠나 유배지인 관서 지방의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때 관서의 외진 곳(㉢)에서의 서술을 통해서 화자가 제한된 공간에 머물고 있고(㉡),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음은 알 수 있지만(㉢), 현실에 적응해 가는 과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14~17] 작품 해제

## 작자 미상, 「수저옥란빙」

이 작품은 일부다처 생활에서 벌어지는 처첩 간의 갈등과 비극을 그린 가정 소설이다. 제목 ‘옥란빙(玉鸞聘)’

은 결혼 폐물로 삼는 옥으로 된 닭과 비슷한 전설 속의 새인 난새를 뜻하며, 시댁에서 보유한 옥란과 석 부인이 가져온 옥란이 한 쌍을 이룸으로써, 숙문과 석씨가 천생연분임을 보여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숙문이 매영을 냉대하자 매영이 석 소저를 모함하고, 송씨가 계략을 꾸며 숙문에게 석 소저를 모함하자 숙문이 석 소저를 의심하게 된다.

## 14.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⑤

이 글에서는 ‘석 소저’, ‘매영’, ‘송씨’의 대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①, ②) 그리고 매영이 석 소저에게 하는 행위와 송씨가 석 소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③) 또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④도 적절한 설명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 15. 구체적 정보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③

매영이 석 소저에게 석 소저의 아버지가 모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모함하자 ‘석 소저가 뜻밖에 참욕을 보매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나 안색을 바로 하고 묵연히 단좌하매 매영이 더욱 노하여 집기(什器)를 부수고 대담치 아니함을 따져 물으니, 석 소저가 대로하여 눈썹을 거스리고 옥성을 가다듬어’ 매영에게 방자히 굴지 말 것을 꾸짖고 있으므로, ③처럼 석 소저가 매영과의 충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① 숙문이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들어오다 도로 나가며 한 말인 “불상견(不相見)할 사람이 있으며 도로 나간 것이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숙문이 매영에 대해 “유씨의 근본이 유 시랑의 적녀가 아니라 하니 차마 부인으로는 대접할 수 없나이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 적녀는 정실(본처)이 낳은 딸을 의미한다.

④ 숙문이 송씨가 석씨를 모함하는 말을 듣고 “그대가 집안에 들어온 후 특별히 험한 일이 없더니, ~ 진실로 그러하면 내 비록 어리석으나 가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라고 한 내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⑤ “낭군의 병세가 중하여 신부더러 진가 집안에 먼저 찾아와 성례(成禮)하라고 하시더니”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16. 특정 인물에 주목한 사건 이해

정답 ③

[A]에서 송씨는 석 소저에 대해 “석 소저가 존당과 낭군의

안전(眼前)에서는 효순하나 침을 사사로이 보면 이를 갈며 왈, '네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 하며 욕을 보이니"라고 하며, 석 소저가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송씨가 숙문의 이중적 태도를 원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③은 '석 소저의 이중적 태도를 원망함.'으로 수정되어야 적절한 내용이 된다.

**17. 인물의 심리 파악을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①

이 글의 앞부분에서는 “생의 부인은 다만 석씨니, 또 누가 있으리오?” 하던 숙문이 송씨의 계략에 빠져 석 소저를 의심하며 “~ 송 서모의 말이 여차여차하니 그 죄 어디까지이뇨? 진실로 그러하면 내 비록 어리석으나 가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라며 석 소저를 질책하고 있다. 이에 ㉠에서 석 소저는 숙문의 질책에 놀라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석 소저의 심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변해 버린 입에 대해 서러움과 한탄을 노래하고 있는 ①이다.

- ② 입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입에 대한 굳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제 잘못을 뉘우치며 옛 정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어린 단종에 대한 슬픈 연정을 드러내고 있다.

**[18~20] 지문 해제**

**형광등의 원리와 그 활용**

형광등이 빛을 내는 원리를 설명하고 그 원리를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어떤 물질이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내놓는 과정에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현상인 형광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형광등은 빛을 낸다고 밝힌 후 그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사례로 세계와 별의 구성 원소 분석을 들고 있다.

**18. 구체적 정보의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②

전류에 관해서는 언급되었지만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는 이 글에 제시되지 않으므로, ②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 ① 둘째 문단에서, ‘형광등은 양쪽 끝이 봉해진 좁은 유리관과 유리관에 발린 형광물질, 두 개의 전극으로 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③ 셋째, 넷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④ 일곱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⑤ 다섯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정보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④

여섯째 문단에서 ‘들뜬 상태의 형광물질 원자의 전자가 바닥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은 원래 흡수했던 자외선의 에너지보다 적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형광등의 형광물질이 흡수한 에너지의 양은 ㉠의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과 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된다. 따라서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① ㉠은 수은 원자가 전자와 충돌하여 ‘들뜬상태’를 만드는 과정이고, ㉡은 들뜬상태의 수은 원자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며 바닥상태로 가라앉는 전이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궤도가 가진 에너지의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①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여섯째 문단의 ‘따라서 들뜬상태의 형광물질 원자의 전자가 바닥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빛은 원래 흡수했던 자외선의 에너지보다 적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넷째 문단의 ‘원자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자는 보통 에너지가 낮은, 핵에 가까운 궤도에 위치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다.
- ⑤ 여섯째 문단의 ‘또한 형광물질의 원자는 수은 원자와는 달리 전자궤도 간 에너지 준위 차가 크지 않으므로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보다 낮은 진동수의 가시광선이 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0. 구체적 사례의 비교를 통한 적용** 정답 ②

다섯째 문단을 통해, 수은 원자에서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이고, 우리 눈은 가시광선 영역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쏘일 경우 해롭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형광등’과 ‘고압 수은등’은 모두 수은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직접 이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21~24] 작품 해제**

**(가)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이 시는 건강하고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을 ‘청산’이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청산’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인 ‘청산’에게 화자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연에서는 쓸쓸한 나무가 우거지고 금빛 기름진 햇살이 비치지만 사슴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적막한 청산의 모습을 그려 내면서 이상향이 도래하지 않은

비관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는 만나고 싶은 ‘불이 고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3연에서는 혼탁한 시대 상황에서 ‘불이 고운 나의 사람’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4연에서는 비록 자신의 기다림이 허망할지라도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라고 하며 이상적 세계를 기다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

#### (나)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의 고통을 이겨 내고 밝은 세상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는 시이다.

시적 화자는 겨울강의 얼음을 깨고 물을 마시며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소리를 이루는 새 날을 바라고 있다.

1~4행에서는 얼음을 깨는 행위를 통해 억압의 상황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나타나 있고, 5~10행에서는 암울한 현실이 극복될 조짐과 희망을 노래하였으며, 11~15행까지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이루기 위한 염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다) 신석정, 「전아사(餓 詞)」

이 시는 ‘포용할 꽃 한 송이 없는 세월’을 살아온 화자가 ‘밤’으로 표상된 고난의 역사를 보내고, ‘새벽’으로 표상된 새 역사를 맞이하겠다는 현실 극복 의지를 남성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얼룩진 역사 속에서 살아온 화자는, 통곡을 하기에는 자신의 젊음이 스스로워 어느 지점에 멈춰 서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좌표를 알 수 없어 대낮인데도 밤보다 어둡게 느껴진다. 그런 속에서 화자는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리운 목소리를 듣고, 연이어 달려오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당신은 인자한 얼굴과 환한 웃음으로 다가와 화자의 차가운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한편, 빛나는 지혜의 눈으로 꾸짖어 주면서, 좌표를 잃고 어둠 속을 헤매던 화자를 다시 각성케 한다. 이에 화자는 ‘당신의 거룩한 목소리가 / 내 귓전에 있는 한, / 귓전에서 파도처럼 멀리 부서지는 한’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탄의 가슴에 창을 겨누고 그것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얼룩진 역사에 만가(輓歌)를 보내고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 21. 작품들 간의 공통적 속성 파악

정답 ④

(가)는 건강하고 순수한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고, (나)는 얼음과 겨울로 상징화된 부정적이

고 암울한 현실의 고통을 이겨 내고 물이 제소리를 이루는 밝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다)는 ‘밤’으로 표상된 고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벽’으로 표상된 새 역사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가) ~ (다)는 공통적으로 현실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④가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22.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

정답 ④

(가)는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 산아. / 산아 ~ 산아 ~’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고(①), ‘디끌 부는 세상’, ‘벌레 같은 세상’과 ‘보고지운 나의 사람’의 대립을 통해 현재의 세상과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②).

그리고 ‘철철철, 뚱뚱, 줄줄줄, 총총총’ 등의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③), 시각·청각·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⑤)

하지만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23.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나)의 ‘운다’는 풀에 물이 올라 봄이 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다)의 ‘새벽을 잉태(孕胎)한 함성(喊聲)으로’는 아름다운 미래의 조국을 이루기 위해 바른 역사를 형성하겠다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은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표현한 시구(④)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24. 자료의 활용을 통한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③

<보기>에서는 (다) 시의 제목인 ‘전아사(餓 詞)’를 ‘보내다’와 ‘맞이하다’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을 시적 화자가 보내고 싶은 것과 맞이하고 싶은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 화자가 살아 온 부정적 현실의 모습이고, ㉡은 현실을 바꾸려는 양심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며, ㉢은 현실에 절망하는 화자의 마음이다. 그리고 ㉣은 절망적 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시적 화자가 보내고 싶은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은 좌표를 잃고 시대의 어둠 속을 헤매는 화자를 위로하고 일깨우는 당신의 모습으로, 시적 화자가 맞이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28] 지문 해제

**한국 신화의 종류**

이 글은 한국 신화의 종류를 소개하고 각각의 신화 유형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국 신화는 전승 수단에 따라 문헌 신화와 구비 신화로 나눌 수 있다. 문헌 신화는 다시 지역적으로 북방 신화와 남방 신화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구비 신화의 대부분인 무속 신화에 대해서는 「창세 신화」와 「제석본풀이」, 성주 신화, 제주도의 「삼성 신화」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25. 구체적 정보의 이해를 통한 확인**

**정답 ⑤**

①은 둘째 문단의 ‘건국 신화는 하늘을 상징하는 남신과 땅이나 물을 상징하는 여신이 결합하고 시조가 왕으로 즉위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②는 첫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③은, ‘북방 신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셋째 문단과 ‘남방 신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④는 다섯째, 여섯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⑤의 ‘건국 신화를 분석하는 방법’을 언급한 내용은 없으므로, ⑤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6. 정보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활용**

**정답 ④**

넷째 문단을 보면, ‘시조가 왕으로 즉위한 후 시조의 혼례과정이 제시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④처럼 ‘시조가 혼례과정을 거친 후 왕으로 즉위하는 순서로 서술하자.’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넷째 문단의 ‘남방 신화는 시조의 부모가 나타나지 않고 ~ 시조는 알로 탄생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나올 수 있는 의견이다.
- ② 둘째 문단의 ‘건국 신화는 하늘을 상징하는 남신과~’라는 내용, 셋째 문단의 ‘예를 들어 <주몽 신화>에서 주몽은 하늘에서 내려온 해모수와~’라는 내용, 마지막 문단의 ‘남성이 땅에서 솟아났다는 점은 부계 혈통의 근원을 대지에 두었다는 것으로 본토의 건국 신화와 대조된다.’는 내용 등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의견이다.
- ③ 셋째 문단의 ‘주몽은 해모수 족과 하백 족이 통합된 새로운 집단에서 성장하여 ~ 새로운 국가의 통치자가 된 것이다.’라는 내용, 넷째 문단의 ‘박혁거세는 육촌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고, ~ 다른 곳에서 도래한 존재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의견이다.
- ⑤ 넷째 문단의 ‘박혁거세가 탄생하자 여섯 촌장이 모여 ~ 비로소 씨족 단위의 공동체와는 다른 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적절한 의견이다.

**27. 정보의 이해를 통한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⑥**

이런 문제는 각 선지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① 다섯째 문단의 ‘이는 대부분의 신화가 보여 주는 부자(父子) 중심의 서사 구조가 아닌 ~’이라고 한 내용과 연관 지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 ② 다섯째 문단의 ‘무속 신화는 고대 무속 제전에서 형성된 이래 부단히 생성과 소멸을 거듭했다.’는 내용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 ③ 문헌 신화의 대부분인 건국 신화는 ‘하늘을 상징하는 남신과 땅이나 물을 상징하는 여신이 결합하고’, 구비 신화의 대부분인 무속 신화 중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창세 신화>와 <제석본풀이>가 ‘남신과 여신의 결합이 제시된’다는 내용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 ④ 마지막 문단의 ‘<삼성 신화>에서는 ~ 여성이 배를 타고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 여성이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은 여성이 도래한 세력임을 말해 준다.’는 내용을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⑤는, 셋째 문단에서 주몽이 도착 세력인 해모수의 왕국을 계승하여 즉위한 것이 아니라 금와왕이 다스리던 동부여라는 새로운 집단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 그리고 넷째 문단의 박혁거세가 도착 세력인 육촌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고 그의 부인 알영도 다른 곳에서 도래한 존재였다는 내용을 통해 적절한 반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8. 문맥상 교체 가능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①**

‘추대’는 ‘윗사람으로 떠받들.’의 의미이므로, ①은 ‘임금으로 받들어 모심, 떠받들어서 지도자로 세움.’의 뜻을 가진 ①의 ‘옹립(擁立)’과 바꾸어 쓸 수 있다.

- ②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함.
- ③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 ④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 ⑤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

[29~32] 지문 해제

**음소의 의미와 특징**

이 글은 음성의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로 ‘음소’의 개념을 밝히고, 그 특징을 다각도로 서술하고 있다. 첫소리 /ㅅ/과 /ㅃ/의 음소 인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음소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음소의 특징으로 최소대립쌍, 변이음, 상보적 분포, 언어적 다양성 등을 언급하였다.

**29. 정보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판단****정답 ③**

셋째 문단에서 ‘음소가 바뀌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한 언어에서 동일한 소리가 서로 다른 음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는 ③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 ① 일곱째 문단에서 ‘한 언어에서 음소로 분류되지 않는 변이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음소로 인식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다.
- ② ‘물’의 /ㄹ/과 ‘바람’의 /ㄹ/은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데도 언중들이 이 두 소리를 같은 음소로 인식한다는 다섯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둘째 문단의, ‘산’과 ‘싼’의 첫소리가 조음 위치는 같지만 조음 방법이 다른 경우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넷째 문단에서 ‘두 소리가 서로 다른 음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최소대립쌍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0. 구체적 정보의 이해 및 확인****정답 ⑤**

- ① 셋째 문단의 ‘음소는 음성의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넷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최소대립쌍이 두 소리가 서로 다른 음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넷째 문단의 ‘서로 다른 두 소리가 어떤 특정한 언어에서 언중들에게 다른 소리로 인식되고 또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면 그 두 음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한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는 여섯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⑤‘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음소의 분류’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31. 정보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사례의 적용****정답 ③**

최소대립쌍은 ‘산’의 /ㅅ/과 ‘싼’의 /ㅍ/과 같이 한 가지 소리의 차이만으로 의미가 달라지는 소리의 짝을 가리킨다. 그런데 ③의 ‘밭’과 ‘밥’은 첫소리 /ㅃ/ 하나만 같고, 중성과 종성이 모두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소대립쌍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밭’의 /ㄹ/은 [l]로, ‘보리’의 /ㄹ/은 [r]로 소리가 나므로, 하나의 음소가 발음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 변이음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② ‘밭’과 ‘밭’은 /ㅌ/와 /ㅍ/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고 있으므로, 이때 /ㅌ/와 /ㅍ/는 대립관계이다.
- ④ ‘밭’, ‘빨’, ‘꿀’은 /ㅃ/, /ㅍ/, /ㅍ/에 의해 다른 소리로 인식되며 의미가 변별되고 있으므로, ④처럼 말할 수 있다.

- ⑤ ‘밭’과 ‘밥’의 첫소리 /ㅃ/은 같은 소리이므로 조음 위치가 같다고 할 수 있다.

**32. 접두사 ‘뒤-’의 의미 이해****정답 ①**

접두사 ‘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거나,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뜻을 더한다. 이때 ①‘뒤바뀌지’의 ‘뒤-’는 ‘반대로’ 또는 ‘뒤집어’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①‘뒤었다’의 ‘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 ②~⑤의 ‘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고 있다.

**[33~36] 지문 해제****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 글은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관을 소개하고 그 일종인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를 설명하고 있다.

독과점시장에서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높아지게 될 때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최고가격제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수요자인 상품에 적용되어 공평성을 추구하는데,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도리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에 맡겼더니 가격이 너무 싸서 문제가 되는 경우, 최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가격 이하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최저가격제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33. 구체적 정보의 이해를 통한 판단****정답 ②**

-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아지고,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균형가격보다 높아진다는 내용은 있지만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교정하는 기준이 균형가격이라는 ②의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③ 첫째 문단의 ‘과점시장에서는 몇몇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서 ‘독과점은 시장 질서의 왜곡, 소비자들의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병폐를 낳기 때문에 정부는 독과점금지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견제한다.’고 하고 있다.

**34. 자료 해석의 적절성 평가****정답 ②/⑤**

B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균형가격에서의 공급량이다(②). 그리고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정부는 기업이 공급을 줄인 만큼 공급을 늘려야 하므로 C에서 A를 뺀 분량만큼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⑤). 따라서 ②와 ⑤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35.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는 정부가 공공재를 민영화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가격 인화를 예상했지만 반대로 민간기업들이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담합하여 발전 시설을 폐쇄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한 예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첫째 문단에서 정부가 독과점을 허용하는 공적 기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예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④가 가장 적절하다.

36. 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③

㉠은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고, 수요자는 수요를 늘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법으로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합한 것은 ③이다.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 ① 이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②, ④, ⑤ 이는 공급이 아닌 소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이다.

[37~40] 작품 해제

최윤, 『푸른 기차』

이 작품은 스물여덟 살의 대학 강사인 ‘그’를 통해 일상의 지루함과 무의미함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에 특정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들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도 없다. 단지 한 인물의 내면 의식과 무의미한 행위가 건조하게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제시된 부분에서, 그는 쌓여 있는 책의 가장 아래에 있는 <최신 지리부도>를 보다가 문득 어디론가 여행을 떠날까 생각도 해 보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한다. 그는 서랍에서 지폐 한 장을 들고 매일 외출을 한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기껏해야 서울역이나 남산, 야구장 근처나 대공원 등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온다. 그런데 그러한 외출도 어느 날 서랍을 열어 돈이 떨어졌음을 확인하고는 멈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군악대의 복소리와 함께 일어나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그 동안 멈추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

37. 작중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이 글에서 ‘그’는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외출을 하지만 꼭 외출을 할 필요도 없으며, 외출을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돌아올 뿐이다. 이런 그에게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고 그도 그들에게 성

냥불 부탁이나 시간을 묻는 일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또한 그는 시간을 멈추면서 주인이 되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증명할 것도 없었다. 어쩌면 그는 살았을 뿐이다. 이런 ‘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이다.

38. 작품의 분석적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③

③에서처럼 ‘그’가 외출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찾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가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들의 철학’을 긍정하였다면, 외출을 해서 ‘그’가 보여 줬던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실을 말하면 그는 이제는 어떤 이유건 꼭 외출을 할 필요도 없으며 외출이라면 할 만큼 했다. 없애지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라면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며 ‘그’가 일상으로 회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39. 인물의 태도 파악을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①

[A]에서 ‘그’는 쌓여 있는 책더미 맨 밑에 있는 <최신 지리부도>를 꺼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떠올려 본다. 하지만 ‘그’는 끝내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지리부도 꺼내는 일을 포기한다. 그러면서 설령 예를 써서 책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그 책 속에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지리부도 꺼내는 일을 포기한 것에 대해 합리화를 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①의 여우와 유사하다. ①에서 여우도 탐스럽게 달린 포도를 보며 따 먹을 궁리를 이리저리 하지만 자신의 키로는 닿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포도가 분명히 실 것이라며 자신이 포도를 포기하는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까마귀는 지혜와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 ③ 나귀는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기가 화를 부르고 있다.
- ④ 개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 ⑤ 사자가 쥐에게 은혜를 베풀자 쥐도 사자가 위급한 때 도움을 주고 있다.

40. 문장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 파악

정답 ②

㉠은 <보기>에서의 주체와 대상이 뒤바뀐 표현이다. <보기>에서는 ‘그’가 주체인 반면, ㉠에서는 ‘그’가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이 <보기>와 같이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이 글에서 ‘그’가 자신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음을 잊지 않을 정도로만 살고 있으면서 이유 없이 외출하고 이유 없이 음악을 듣다가 다른 곡, 다른 핑계에 매달리기 전까지 잠시 동안 음악(『푸른 기차』) 사랑하게 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가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②가 가장 적절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